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Sumjin River Fish Eco Museum

Design Note





섬진강을 따라 가면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싹뿔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뻐 으스스하게 그리워 얼싸 안고
 지리산 몽툰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 보라.

김용택의 「섬진강」에서

남도 풍경

전라도 하면 잘 보존된 자연 환경과 넉넉한 인심, 맛있는 음식, 풍류가락으로 대표되는 토속적 문화예술이 떠오른다. 많은 전시관들이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확보차원에서 세워지고 있지만 남도만의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섬진강 토산어류 전시관은 신안군의 수산시험연구소 소속 수산연구관의 노력으로 섬진강의 산하를 뒤덮고 있는 많은 종류의 외산 어류, 식물, 동물들에 대응하여 우리 것을 알고 보존하고, 교육하는 지킴이의 역할과 섬진강에서만 볼 수 있는 남도의 산하를 담은 축소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건물은 바가지를 얹어 놓아도 예쁘게 보일 아름다운 섬진강의 중심에 서 있다. 건물자체가 자연을 가리지 않게 하고 자연의 일부로 동화되도록 단순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섬진강의 자연을 대지에 축소하는 것이 디자인의 출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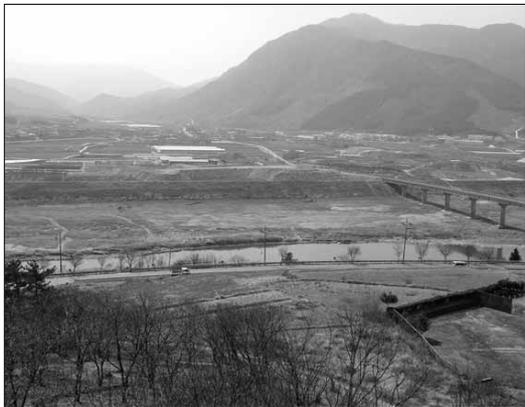
대지보기

바람이 너무 거칠게 불어 현장을 한치 앞

도 보기 힘든 날에 구례군청에서 현상설명이 있었다. 구례에서 화개장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현장은 태풍에 밀려온 자연석 덩어리로 메워져 있었다. '이 땅에 어떻게 건물을', '자연석을 팔면 돈 좀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지나칠 즈음 강가에 인접한 대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지리산과 섬진강을 휘돌아 가고 있었다. 이 땅에 내 작품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이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발담그기

현상설계만 한다면 으레 겁부터 먹는 것이 직원들이다. 언젠가부터 터키제도라는 것이 생겨 건설사에, 외주처에, 상대팀에 치이다 보면 뒷사람이 가장 피곤해지는 데 비하면, 소장 입장에서야 건축사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일년에 두 세 번하는 현상설계는 할만하지만 직원들은 날카로운 말투로 끝날 때까지 계속 바꾸는 소장, 계속되는 철야로 피곤한 심신을 생각하자면 전라도 말로 '아따 징압네' 소리가 절로 나오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뭔가 당근이 필요 했다. '이 프로젝트를 사무실의 교육 차원에서 각자 계획을 만들어서 좋은 안을 현상 설계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건물에 남기고자 한 것

답음

입체적 랜드스케이프, 섬진강의 자연의 대지에 축소하여 상류, 중류, 하류의 생태를 보여 주었으며, 주변의 섬진강 강가에 언제든 연결될 수 있도록 워터 프론트와 연결을 제안하였다.

보임

전망대로서의 전시관, 주변의 도로에서 잘 인지되도록 하며, 전시관 자체가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하여 전시순로에서 언제나 섬진강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오름

자유로운 생명체, 투명하고 깨끗한 생명체와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치어의 모습을 담고자 했다.

에필로그

'적더라도 똑똑한 놈을'

설계가 시작 될 때부터 걱정이다. 전시관 공사비로 평당 500만원이라니, 설계비는 둘째 치고, 납품할 때 마다 걱정이다. 지방은 왜 땅 값이 싸고, 왜 이리 땅은 넓은지, 붙어 있는 시설은 왜 이리 많은지, 공사비는 항상 턱 없이 부족하다. '설계를 잘 못 배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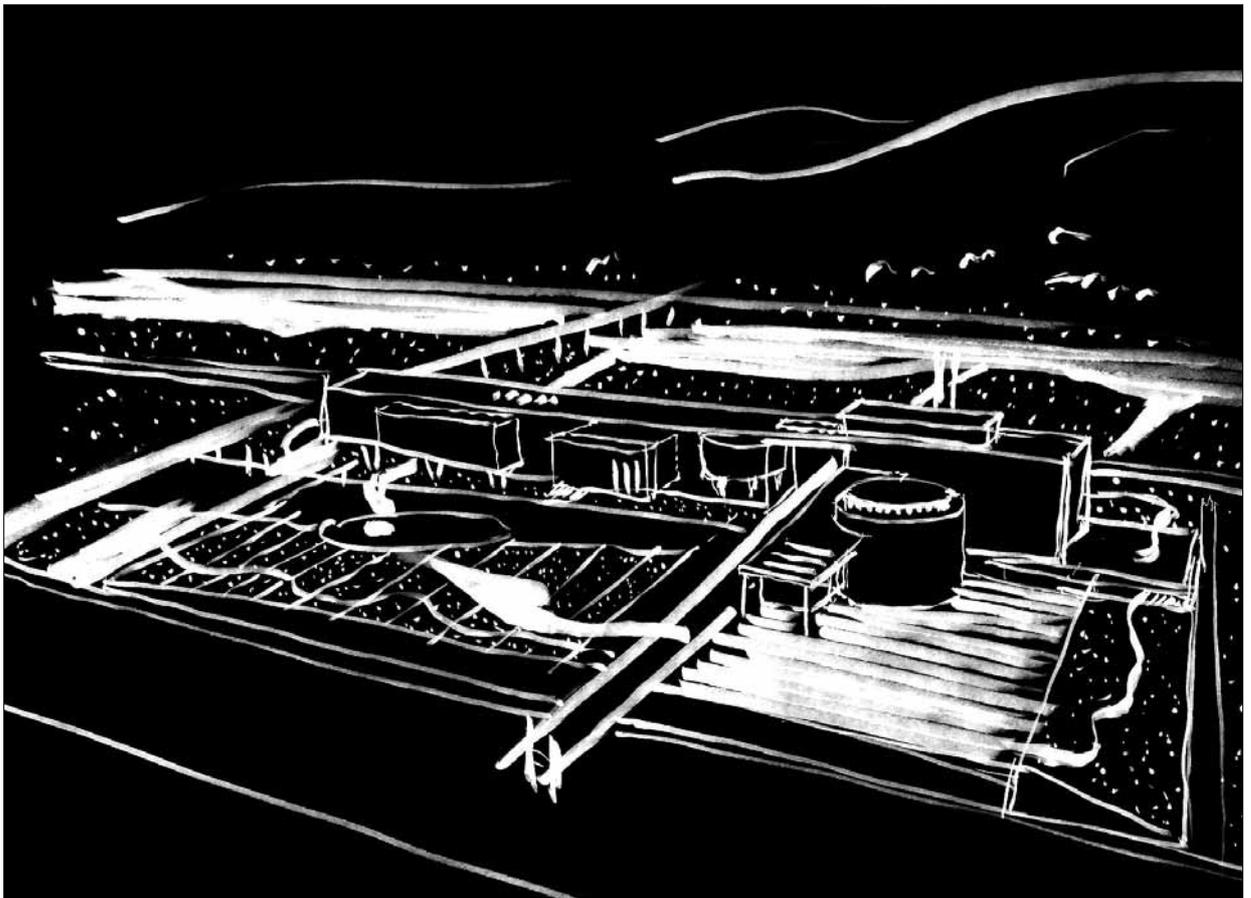
가' 고민 고민 하다가 건축사가 공사비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적더라도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명목의 수차례 브리핑 투쟁으로 겨우 쟁취하게 됐다.

'닭이 먼저'

전시관 설계에 가장 맹점은 전시팀과의 협력관계이다. 물론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짓지만 전시관 자체가 전시물이란 관점은 지방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의 현실상 전시업체는 공사를 주로 하기에 설계의 전문화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건축사는 발주처와 자문위원, 전시업체까지 모시는 MA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닭도 달걀도 다 쓸모 있지만...

'쟁이 구하기'

지방에 내려 온 이후 가장 고민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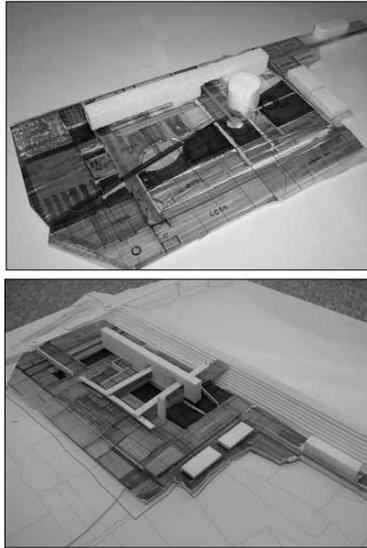


가 건축사의 위상이다. 왜 다들 건축을 하지 않으려 하는지 도통 쟁이를 구하기가 힘들다. 선배 건축사들이 잘 되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계신다면 이렇지 않을 텐데. 강의를 나가면서도 후배들을 설득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매번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프로젝트를 “어떻게 무사히 끝내나”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작품을 만드나”하는 생각은 뒷전으로 밀려 난다.

‘어디 훌륭한 현장소장 없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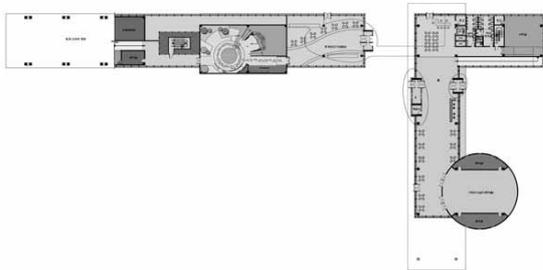
이제 곧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에 비하면 지방현장은 민원이 적고 공사현장은 널찍해서 좋은 편이다. 하지만 좋은 기술자와 협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 지역민들과 거의 동화되어 생활하지 않으면 공사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어렵게 한 설계를

온갖 병을 다 치료해주시며 작품을 만들어갈 현장소장님을 기대하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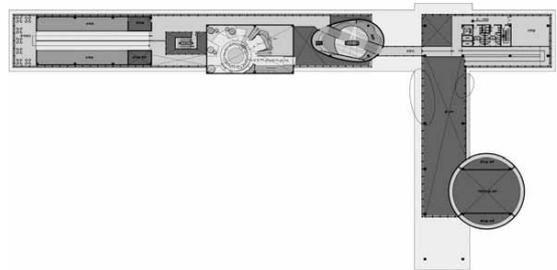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12번지 일원
 지역지구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연구시설
 대지면적 35,645㎡
 건축면적 2,725.77㎡ (전시판 3833.5㎡)
 연면적 3,855.34㎡
 건폐율 7.65%
 용적률 9.33%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THK30 화강석, 카펫타일, 비닐계타일, AL 천장재
 외부마감 THK24 투명보충유리, THK3 AL 복합패널, 노출콘크리트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